

## 대학교육의 발전방향



김성명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 졸업자 취업실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연계한 취업 통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등) 졸업자 555,142명 중 총 취업자는 286,896명으로 2012년에 비해 3.3%(9,755명)가 감소하였고, 전체 취업률은 59.3%로 2012년에 비해 0.2% 하락 하였으나 해외 취업자는 총 1,647명으로 2012년 대비하여 23.6%(313명)증가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고등교육기관 중 전문대학 취업률은 61.2%로 전년대비 0.4% 상승하였고, 대학 취업률은 55.6%로 전년대비 0.6% 하락하였다.

세부적으로 설립 주체별 취업률을 보면 사립대학 59.6%, 국공립대학 58.1%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취업률을 보면 남성 62.7%, 여성 56.1%로 남성 취업률이 여성보다 6.6% 높게 나타났지만, 취업자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하지만 이런 대학의 취업실태 분석과 상반된 현상을 또 다른 시시점에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노동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기술직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 회계 등 일반 사무관련 직이나 금융, 보험 관련 직종의 인력 부족률은 낮는데 비해 전기, 전자, 토목, 건축 등의 이공계 전공의 경험인력은 상당히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직업 선택과정에서 교육의 내용이나 정원 산정 등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수요와 괴리가 되어 산업구조 및 기술의 변화사항을 교육 당국

이 적시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미스매칭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표 1. 201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구분	학교수	졸업자	취업 대상자	취업률 (%)	취업자	진학자 기타	외국인 학생
고등교육 기관	552	555,142	483,702	59.3	286,896	250,831	17,415
전문대학	147	184,817	167,679	61.2	102,621	81,088	1,108
대학	183	294,952	252,263	55.6	140,155	144,379	10,418
교육대학	10	5,055	4,911	72.0	3,538	1,517	0
산업대학	16	19,075	17,409	64.9	11,290	7,208	577
각종학교	5	683	531	28.8	153	517	13
기능대학	24	6,325	5,866	85.0	5,006	1,313	6
일반대학원	167	44,235	35,023	68.9	24,133	14,809	5,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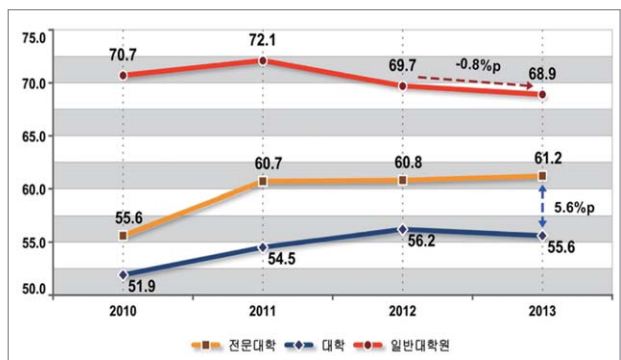


그림 1. 2010~2013년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 추이

\* 조사기준일 : 2013년 6월 1일

\* 보도자료 : 2013년 고등교육기관 건강보험연계 취업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신규취업자들의 경우는 전공 불일치도가 높고 수요에 대한 미스매칭 현상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학교교육의 전

공별 인원수나 교육내용이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간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경력직 선호현상이야말로 현행 학교 교육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시장에서의 실무형 범용교육이 대학 졸업장보다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현 대학의 모습 및 현상

지난 시대의 순수한 대학의 모습은 상아탑(象牙塔)이라 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공간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곳이라고 한때 믿어왔다. 지난 시대의 대학의 이미지를 조망해 보면

- 60년대에는 상아탑이라 하여 진리, 정의 같은 가치덕목을 지향하며 지성과 젊음을 대표하던 대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그들 자신도 그러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유 있는 향수를 누렸던 것 시기였다.

- 70년대에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암울한 사회 질서를 비판하며 기존의 정권 체제에 대한 저항문화의 초석을 다졌던 것으로 보이며 자유에 대한 자신들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했던 시기였다.

- 80년대에는 문화생산의 주체자로서 대학문화의 절정을 구사하며 과거 군부시대의 비판자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정열과 순수함을 가진 정의로운 세대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고민했던 시절이었다.

- 90년대에는 학생들의 기조가 감각적이고 관능적이기까지 하여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은 기피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인 성향과 행동이 증대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요즘의 대학가에는 경제 불황과 침체기를 맞아 대학이 취업준비 학원화와 같은 수식어들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차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신자유주의 시류(時流)를 탄 대학은 선택과 집중을 자연스럽게 내세우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게 좀 더 경쟁력 있는 학과를 취사선택해서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학생 및 대학들의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대학은 한계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면,

- 대학의 상업화이다

요즘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각 대학 당국의 최고 목표가 되고 있다. 학교 내외서의 취업 박람회, 연수기회의 제공 등을 통해 교육당국의 취업률 제고 독촉과 대학 평가 반영 우선을 위해 급급해 하는 상업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 학생 고유능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등 교양교과목의 축소 경향과 폐강현상이다.

대학이 언제부터인가 인성, 감성 등을 위한 교과목의 개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그 대신 복수 전공에서 인기 있는 경영학 등이 두드러지는가 하면, 학부제 실시 이후 소위 비 인기학과의 학생가뭇 현상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의 편향적 모습이다.

최근의 대학 동아리 모임 활동이 취업문화와 관련된 취업 컨설팅, 취업박람회, 창업 준비, 실용영어 동아리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대학 참 모습의 전통적인 동아리 모습은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대학의 기존체제에 의한 답습교육이다

대학이 기업 및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국내의 환경변화에 유연성 있는 대학의 조직 및 체제를 정비해야하고 이들의 환경개선 및 특성화에 따른 재정투입과 인력이 전제 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대학 기존 정서에 젖은 조직과 학사운영에 의한 답습 교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 대학캠퍼스의 서정적 풍경 등 전통적 자취의 감소이다

대학 본연의 진리를 탐구하던 서정적 풍정의 자취는 사라지고 개개인의 개성과 재능을 살려주는 놀이 문화가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 향후 대학교육과 산업발전 연계를 위한 방향 제언

지금까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실태 와 미스매칭 그리고

현재 대학의 모습 및 현상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제는 대학교육이 개개인의 능력을 보다 쉽게 노동시장의 요구에 잘 맞출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학습을 지향하고, 대학과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교류를 증진하여 대학 내에 다양한 창업프로그램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 운영하여 학생들이 노동시장과 실무기술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를 유연하게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 1. 기업 또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자중심의 대학교육

대학당국은 기업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형화된 교육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바 이제는 일반적이고 답습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중심,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고객인 기업 또는 산업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술 및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교육이 필요하다.

### 2. 학생들의 교육방식을 주입식에서 토론식으로 교육환경의 개선

대학교육이 주로 강의실 중심인 주입식(암기위주) 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배출되는 인력이 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출되고 있는 현재의 패턴교육에서 체험용량을 갖춘 전문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식 교육을 통해 상호 교육정보의 이해도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 3. 사회적 관점이 반영된 인재상 교육

최근 기업들의 인재상 기준을 보면 창의성과 도전정신 그리고 전문성이며 이외에 글로벌 마인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및 윤리성 등을 꼽을 수 있다.

- 창의성을 위해서는 수학, 언어 등 기초학문 분야가 튼튼하게 배경이 되어야하며 풍부한 경험과 독서를 통해서 기초학문의 뿌리가 튼튼하게 갖추어진 인재교육이 요구된다.
- 전문성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양성되기는 힘든 능력이라 보며 이 또한 기초학문의 습득이 중요한 기반이라고 본다.
- 윤리성을 위해서는 직업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자신이 선택한 학교, 직장 등에서 신뢰 관계를 쌓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최근 경총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기업이 선발한 신입사원

의 23.7%가 입사를 포기하며, 입사한 인력의 27.7%가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일단 입사하고 보자는 태도로 인하여 기업은 상당기간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 4. 교육당국의 대학교육에 대한 자율성 확대

대학교육이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고, 기업의 욕구가 교육 내용에 시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서 대학교육 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 개선을 통해 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대학 스스로가 산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 할 수 있도록 학사 자율권을 대폭 이양하여야하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이 학교간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5. 학교 내에 대학생들의 적성, 직업상담 역할 강화

최근 대학을 진학하는 대부분 학생들의 현실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성적에 맞추어 대학을 진학하는 현실로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장래 적성이나 직업설계의 선택이 불가능하므로 학생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 유망 직종과 개인의 성향 및 자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커리어 컨설팅 등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 6. 산업-대학 간 산학협력체제 강화

기업은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아이템을 대학에 요구하고 대학은 기업이 탐낼만한 창의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체제가 강화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사업화 과정에서 이른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학협력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산학협업조직을 상설화 하는 등 실질적인 상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 7. ICT 를 활용한 대학교육의 혁신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MOOCs라는 새로운 교육방식을 통해서 대학의 강의를 최저가로 일반대중들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교육 시스템이다.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 예일, 하버드대학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은 기존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정적으로 제공하

던 공개강좌에서 탈피 MOOCs를 제공하는 코세라(Coursera : 미국내 10개 대형주립대학이 공동운영) edx(MIT와 하버드가 공동운영) 등의 온라인강의 플랫폼이 2012년부터 개설되면서 ICT를 통한 대학교육의 혁신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대학이 스스로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의지와 관계없이 변화를 당할 것인가, 대학 스스로 선택해야 할 시점이며 교육환경의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MOOCs ; Massive Open Online Courses , ICT ;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지금까지 졸업자의 취업실태, 현 대학의 모습 및 현상, 향후 대학교육과 산업발전 연계를 위한 제언 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현 대학교육의 한계점과 발전방향을 되돌아보았다.

교육부가 작년 말부터 대학구조조정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2022년까지 9년간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을 줄이는 것으로 전국대학을 3년 주기로 5개 등급으로 차등 평가하여 정원수를 줄여 가겠다는 내용이다. 등급평가를 위한 심사기준내용을 취업률, 학생충원률 등 양적 평가기준에서 대학 교육만족도와 같은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정성 평가기준으로 바꾸어 대학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것이다. 정말 시대적 상황에 맞고 산업계 요구사항과 매칭이 될 수 있는 대학 구조개혁안이 성안되어 대학 발전의 초석을 되길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대학은 대학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기반위에서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산업계와 대학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기업은 대학에 필요한 아이템연구를 요구해야하고, 대학은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 성과를 맞춤형으로 창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혁신이 있어야하며, 또한 대학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기초 및 실용적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전인적 교육현장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 건강보험연계 취업통계
- 황인철(2009) 산업계가 바라는 직업교육의 변화와 발전방향